

언제, 어디서든 이 와인... 조쉬 셀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6

사실 궁금했다. 미국만 가면 어딜 가도 이 와인이 보여서다. 미국 본토 뿐 아니라 광에 갔을 때도 곳곳의 ABC마트 마다 빠짐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미국령이라고는 하나 미국 와인은 물론 진열된 와인 종류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지역에서 말이다.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레이블마다 우아하지만 강단 있는 필체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게 됐다. 미국 내 판매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와인, 조쉬 셀라(Josh Cellars)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와이너리 조쉬 셀라의 데이나 라이얼(Dana Ryall) 부사장은 한국 시장 런칭을 기념해 방한한 자리에서 “조쉬 셀라의 목표는 처음부터 매일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과실향을 중심으로 균형미가 있어 음식과 잘 어울리고, 가격 접근성도 좋아 가족들이 다같이 즐기기에 좋은 와인이 바로 조쉬 셀라”라고 강조했다.

조쉬 셀라는 오래된 와이너리는 아니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조쉬 셀라의 데이나 라이얼(Dana Ryall) 부사장이 한국 시장 런칭을 기념해 방한한 자리에 설명을 하고 있다.

다. 소를리에였던 조셉 카(Joseph Carr)가 2005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했다. 2007년 아버지인 조쉬 카(Josh Carr)에게 헌정하기 위해 ‘조쉬 셀라’로 새 단장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레이블의 ‘조쉬’ 로고 역시 아버지의 실제 필체다.

초창기 차고에서 오직 한 가지 품종인 카버네 소비뇽을 만들어 트럭 뒤편에서 팔았는데 이게 빠르게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다. 2008년엔 와인 한 종류로 1만 2000명만 생산했는데 불과 20여년도 지나지 않아 작년에는 1억병 가까이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급성장했다.



(왼쪽부터)조쉬 셀라 카버네 소비뇽 2023, 조쉬 셀라 레거시 레드 블렌드 2023, 조쉬 셀라 샤도네이 2024, 조쉬 셀라 씨스웨트 2024, 조쉬 셀라 소비뇽 블랑 2024. /안상미 기자

조쉬 셀라는 포도밭이 없다. 직접 재배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포도를 사들여 와인을 양조한다.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많이 보이는 네고시앙 와이너리라고 보면 된다.

데이나 부사장은 “많은 재배자들과 10~20년 인권의 장기 계약을 한다”며 “매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배자들을 관리하면서 포도 선택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와인 메이커인 웨인 도널드슨은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도 와인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카버네 소비뇽과 소비

뇽 블랑 등 다양한 조쉬 셀라 와인으로 평론가로부터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조쉬 셀라 와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느낌을 넘어 사실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조쉬 셀라는 미국내 모든 와인 브랜드 중 매장에 진열된 케이스 수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미화 11~15달러 가격대에서는 전체 진열량의 4분의 1 이상을 조쉬 셀라가 차지하고 있다.

시중에 깔린 만큼 판매량과 성장률도 다른 와인 대비 압도적이다.

조쉬 셀라의 연간 매출액은 약 6억 달러로 11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테이블 와인 중 가장 많다. 2위와의 격차도 2.5배 가까이 난다. 전체 미국 와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2%며, 11~15달러 가격대에서는 20.4%에 달한다.

데이나 부사장은 “와인 시장이 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최근 젊은 층이 와인을 덜 마신다고 하지만 조쉬 셀라는 성장세가 높다”며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와인 판매 1위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젊은층을 타겟으로는 2023년 ‘조쉬 셀라 씨스웨트’를 내놨다. 소비뇽 블랑과 피노 그리지오로 양조해 화이트 와인으로는 단일 품종이 아닌 첫 블렌딩 와인이기도 하다. 여성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알콜 도수를 낮췄으며, 좋은 산도로 한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와인이다.

‘조쉬 셀라 샤도네이’는 샤도네이 품종 와인으로서 미국 내 판매 2위인 와인이다. 캘리포니아 다양한 지역의 포도로 만들어 품질이 안정적이면서 복합미가 있다.

‘조쉬 셀라 카버네 소비뇽’은 조쉬 셀라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와인이다. 잘 익은 검은 과실과 함께 부드러운 탄닌과 구조감으로 균형미가 좋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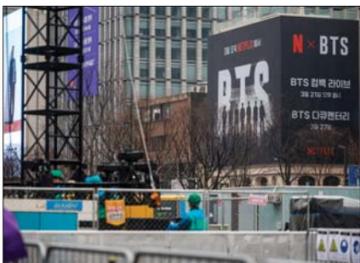
BTS 완전체 귀환... 막바지 준비 분주

최대 26만명 인파 예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무대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탈바꿈 하면서 역대급 규모의 공연 연출과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공연은 BTS가 한국적 정체성을 담아 제작한 새 앨범 ‘아리랑’의 첫 무대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BTS 멤버들은 경복궁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월대를 지나 ‘왕의 길’을 걸어 본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입장을 선보인다. BTS의 이번 앨범은 1896년 미국 워싱턴 유학생들이 최초로 녹음한 아리랑 기록을 참고해 제작되었고 수록곡 14곡 대부분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퍼포먼스가 결합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이를 BTS가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런던 올림픽과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연출한 거장 헤미시 에밀턴이 연출을 맡아 이른바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한다. 공연 당일 현장에는 좌석표를 구한 2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무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만 2000명을 포함해 최대 26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은 유례없는 고강도 안전 관리에 나섰다. 광화문부터 서울광장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며, 1㎡당 2명 이상이 몰릴 경우 해당 구역의 진입을 즉시 차단한다. 행사장 주변에 31개의 게이트를 설치하고, 테러 방지를 위해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문형 금속 탐지기를 통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한다. 공연을 전후해 광화문 일대 교통과 시설 이용이 대폭 제한되는 만큼 방문객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과 안전을 위해 KT 본사 등 인근 31개 건물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옥상이 폐쇄되며, 경복궁과 고궁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도 당일 문을 닫는다. /최규춘 기자 ch9720@

핫플된 롯데시네마, 극장 미식 트렌드 선도

두쫘쿠·상하이 버터떡 등 선행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최신 식음료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핫 플레이스’로 진화하고 있다.

19일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최근 극장이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소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롯데시네마가 의식업계에서 핫한 아이템들을 발 빠르게 도입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시네마 롯데리뷰 극장 최초 버터떡 출시

韓벤처투자 “영화산업 재도약 가능성 확인”

‘왕사남’ 1000만 관객 돌파 기념식

한국벤처투자자가 지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임성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태은정 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 장항준 감독,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신호정 쇼박스 대표를 비롯해 영화에 참여한 주요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이번 성과가 단일 작품의 흥행을 넘어 한국영화 산업 전반의 회복 가능성과 투자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계기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영화·영상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해 왔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창작자와 제작사, 배급사, 투자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자 한국영화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윤휘중 기자 yhj@



▲ ‘슈퍼 매파’ 불탄마저... “이란 핵위협? 수주 내 아니었다” 트럼프 직격
▲ 호르무즈에 갇힌 3200척·2만명... IMO, 안전 통로 결의 예정 /사진 뉴시스

▲ EU, 호르무즈 개입 대신 중동 군함 추가 배치 계획
▲ 중국군 “공중급유에 AI 도입... 효율·안전성 강화”

▲ 美 “다카이치 대만 유사 언급은 ‘중대 전환’”... 日 “우리 입장 일관적”
▲ 이스라엘, 이란 지도부 잇단 암살에도... “정권 교체 가능성 낮아”